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6 대탑 4회랑과 화엄경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 4회랑은 대탑이 화엄대탑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있다. 4회랑에서는 53선지식 보현보살에게 묘각의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는 부조상이 재현돼 있으며 이는 대탑이 〈화엄경〉 화엄계위의 흐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화엄대탑 정체성 보여주는 4회랑



보로부두르대탑 4회랑 주벽 1면. 대탑 4회랑주벽 72부조상을 6분류로 나눴는데 그중 첫 번째 분류로 상하 2단구조이다.

보로부두르대탑의 4회랑은 대탑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회랑이다. 4회랑의 부조상의 내용은 3회랑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대탑 1·2·3회랑과 유기적으로 연관선상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화엄경〉 계위적 입장에서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리도에 이르는 법을 설하는 장면들과 선재가 마침내 법계와 불계에 이른 장면들이 나와야 한다. 이 계위는 52계위의 마지막 묘각의 자리로 불지에 이르러 보현보살과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4회랑의 주벽 부조상 72면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대부분 출현해 입법계품과 중송분(보현행원찬)에 등장하는 보현보살과 선재동자 중 어느 쪽인지 단순히 부조상을 통해 둘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보쉬(Bosch)가 '보현행원찬'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4회랑 소의 경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돼 왔다.

따라서 경전과 부조상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4회랑 주벽 72부조상을 특징별로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현행원찬'과 〈화엄경〉 '입법계품'을 배대해야한다. 앞글에서 보현행원찬의 내용과 4회랑 부조상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 중 53번째 선지식 보현보살을 선재동자가 찾아 불가사의한 경계를 보고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체험하고 듣고 행하여 부처의 경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의 494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부조상과 배대한다. 경전의 내용은 등장인물과 내용에 따라 11단락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부조상과 관련된 경전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쉽게 대응시킬 수 있다.

먼저 72부조상을 6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류는 상하 2단 구조로 72부조상 중 12부조상이 있다.

4회랑 주벽 부조상 1·2·10·14·18·53·54·58·59·69·71·72이 해당되며 상단은 부처상이 주로 등장한다. 불상은 한 존에서 17존 부처님까지 다양해 시방세계의 무수히 많은 부처세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72부조상 중 18부조상으로 중앙 정각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부처님을 친견하는 모양들이다.

4·5·7·11·13·15·17·21·22·23·26·40·57·61·62·68·70 부조상이 해당되며 부조상 중앙 정각 속에 가부좌 부처님을 친견하고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부처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여겨진다. 선지식을 친견하고 보리도를 닦아 보현보살의 인도 하에 선재의 수행정도가 부처의 세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곳은 선재의 선근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보게 되는 상서로운 10가지 모양의 경구들을 상당 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30장면은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고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법을 전하거나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벽부조상 19·24·25·27·28·30·31·32·33·34·35·36·37·38·39·41·42·43·44·45·46·48·49·51·52·55·60·63·64·66으로 전체 42%에 해당한다. 여기서 42·46·48·49·60은 보현보살이 서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이고, 41번은 정각에 쿠션이 있는 장면이다. 그 외 24장면은 보현보살이 정각에 앉아서 선재동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다.

이는 선재동자에게 법을 전하는 보현보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이상학적 표현의 입체화를 위한 반복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전 분류 중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 497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가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불가사의한 경계를 지켜보는 부분이 대부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20·56·65 등 세 장면으로 세 번째 분류처럼 중앙 정각에 보현보살이 앉아 있고 선재동자가 친견하는 모양이나 이번에는 부처님이 등장한다. 이는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어느 부처의 경계를 말해주는 모습일 것으로 사료된다.

5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7장면으로 2층 구조로 위층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좌우 협시로 모시고 있고 아래층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를 위시해 여러 보살이 위쪽 불보살들을 친견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래 조각상은 위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조성되어 있다. 부조상 3·6·8·12·16·47·50번이 해당한다.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다른 부처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모습이다.

**1~4회랑, 화엄경 바탕으로 조성**
**4회랑서 보현 보살 가르침 받은**
**선재 동자 묘각의 불지에 이르러**
**'화엄경' 화엄계위 흐름을 연결해**

6번째 유형은 독창적 부조상으로 유일하게 문수보살이 중앙에 출현하는 67번이다. 이 연꽃은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다음은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의 494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묘각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11단락으로 나눈다. 이러한 경전 분류는 4회랑 부조상 분류 작업 결과와 대조 분석이 가능해 시각적 구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사상적 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 범위를 줄여주어 보다 정확하게 비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11단락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선재동자가 일심으로 문수보살을 친견하기를 염원하다가 보현보살의 해탈 경계를 관찰하고, 보현보살을 친견하고픈 원력으로 선재는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다.

②선재동자는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 후 자기 선근의 힘과 그로 모든 여래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부처님 세계의 10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일어남을 보았다(경전 pp.495-496). 부조상 IVA1, IVA2, IVA3, IVA5, IVA7, IVA9, IVA10, IVA11, IVA15, IVA22, IVA40, IVA51, IVA63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선재동자가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 후 자기 선근의 힘과 그로 모든 여래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모든 세계에 10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았다. 부조상 IVA2, IVA8, IVA53이 해당한다.

④선재동자가 보현보살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 전에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를 지켜본다. 4장면으로 4회랑 주벽에 보현보살을 형상화하기 좋은 부분이다(경전 pp.497-501). IVA4, IVA13, IVA18, IVA23, IVA24, IVA25, IVA30, IVA31, IVA32, IVA33, IVA34, IVA35, IVA36, IVA37, IVA38, IVA39, IVA40, IVA42, IVA56,IVA59, IVA65, IVA70이 해당한다.

⑤선재는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 4가지를 지켜보고 열 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는다. 보현보살을 향한 믿음과 의존이 깊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⑥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를 보면서 바라밀을 얻은 뒤에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 정수리를 만지었고, 정수리를 만진 뒤에는 곧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삼매문을 얻었다(경전 pp.501-502)

⑦한 곳의 모습이 시방세계에 동시에 펼쳐지는 법계의 보편성을 보여준다(경전 p.502) IVA17이 해당된다.

⑧드디어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의 신통한 경계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여쭈어보니 보현보살이 그간의 수행행적에 대해 대답을 한다(경전 pp.502-505). IVA19, IVA26, IVA27, IVA28, IVA29, IVA41, IVA43, IVA46, IVA47, IVA49, IVA52, IVA55, IVA57, IVA61, IVA62, IVA64, IVA68이 해당한다.

⑨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과거 행적을 다 듣고 보현보살을 다시 보니 보살의 부사의한 경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경전 pp.505-507). IVA17, IVA20, IVA50, IVA69, IVA53, IVA54, IVA66 부조상이 이곳에 해당한다.

⑩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 속에 자신을 본 선재동자는 이제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행하는 모습이다.(경전 pp.506-507.) IVA68, IVA71 부조상이 배대된다.

⑪선재동자의 그간 보현의 원과 행을 이룩한 결과로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상과 같이 4회랑 부조상에 대한 비정을 위해 입법계품 중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법하는 경전의 내용을 11단락으로 구분 후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부조상들과 배대해 해당 단락과 짝을 이뤘다.

그 결과 4회랑 주벽의 부조상이 경전의 입법계품과 상당히 연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4회랑의 부조상의 내용은 2회랑에서 1-51선지식을 통해 이뤄지고 3회랑에서 51선지식 미륵보살의 가르침으로 등각의 경지에 이르고, 마침내 이 4회랑에서 53선지식 보현보살에게 묘각의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화엄경〉 화엄계위의 흐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탑 4회랑의 부조상들은 십지품을 재현한 대탑의 10층 구조와 함께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경대탑임을 보이는 강력한 증표이다.

〈동국대 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